

癌의 개요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한다. 연세가 대단히 많은 분이라고 해도 여성에 대한 애착은 누구보다 클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인간과 질병이라는 측면에서 불매 일반적인 세균성 질환이나 결핵 등이 차츰 성공적으로 퇴치되어 감에 따라 전반적으로 평균수명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질병의 양상도 큰변화가 있어 이제는 성인병이 사망의 중요원인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1의 사망원인이 뇌졸중이고 제2가 암이다. 이웃나라 일본은 과거에는 제1의 사망원인이 뇌졸중이었는데 1982년을 기해서 암이 뇌졸중을 추월하여 제1의 사망원인이 되고 있다. 서양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심장병 다음으로 암이 주된 사망원인이 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암발생률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낮아서 다행이나 암이 증가하는 추세임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 암발생률은 강화군의 전주민을 표본으로 해서 연세 암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구10만명당 매년 1백25명꼴로 나타나 이로 미루어 매년 전국적으로 약5만명 정도의 암환자 발생을 추정할 수 있다.

암발생 양상도 미국 등 서양과는 다르고 일본과 유사한 경

향이 있으며 남녀 공히 위암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는 폐암의 발생률이 낮았는데, 차차 증가하여 남자의 경우, 2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부위가 되었다. 서양에서는 남자에겐 폐암, 여자에겐 유방암이 많고 또 남녀공히 대장암이 많다는 점이 우리와 대조적이다. 이런 암발생 역학의 차이는 암 퇴치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포가 증식을 시작해서 암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암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퇴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단지 발암인자를 작동시키는 기전을 찾아내어 이를 피해야만 암발생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상세히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암이 발생하도록 작용하는 즉 발암인자를 자극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원인으로 음식을 지적할 수 있으며 약35%의 암원인이 식생활에 연유되어 있다는 결과가 나와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섭취하는 음식이 암발생의 큰 원인이 되는데 그중에도 제일 문제되는 것이 잔음식으로 과다한 소금이 든 음식은 암을 유발하기 쉽다. 또 태우거나 높은 온도로 조리한 음식은 항상 암을 유발할 수 있다. 한 예로 햄버거 고기를 300°C에서 15분이상 구울때 고기속에 발암물질이 생겨나는 것을 보아도 쉽게 증명이 된다. 그

하는 물은 10%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로써 의사에게서는 폐암과 심장병이 급속히 감소하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암발생빈도를 높이는 세번째 요인은 기생충이나 바이러스 등의 감염증이 문제되는데 암발생원인의 1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많은 예가 B형 간염이 만성화되어 간암을 일으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대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B형간염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 간암발생률이 250배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간암환자의 98

한국인의 암발생 특성(%)

발생순위	남자	여자
1	위(43)	위(26)
2	폐(17)	자궁(24)
3	간(8)	대장(6)
4	백혈병(6)	유방(5)
5	대장(6)	간(5)

소금·높은온도로조리된음식·발효음식등이 癌을誘發 흡연으로인해 구강·폐·취장·식도·후두암등을일으켜

癌의 完治를 위해선 早期診斷이 가장 중요

그러면 과연 암을 원인적으로 퇴치하는 방법은 없을까? 많은 연구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 것은 우리 몸안에 암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세포는 구조적으로 발암인자(oncogene)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 발암인자가 처음에는 우리 인체세포의 증식 및 분화에 중요한 작용을 하다가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억제인자(repressor gene)에 의해서 차단되어 그 작용을 정지하게 된다. 그러다 주위환경요인이나 virus 등에 의해서 발암인자가 자극을 받아 다시 작용을 시작하면 세

리고 대부분의 발효음식이 또한 문제가 된다. 이에 반해 신선한 야채나 과일, 우유 등이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에 위암이 대단히 많은 이유가 잘못된 식습관에 연유되어 있음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요사이 특히 서양에서는 동물성 지방질이 많이 함유된 식품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데, 동물성지방질을 많이 섭취하면 대장암, 유방암 등이 발생하기 쉽다. 미국에 이런 암이 많은 이유도 그네들의 식생활에 기인하며 이에 반해 잡곡밥, 채소 등의 섭취는 대장암발생을 감소시킨다. 음식을 다음으로 중요한 암발생원인은 흡연으로 전체 암의 30%정도가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한다. 미국은 남자에서 제일 많은 암이 폐암이고 여성흡연인구의 증가로 이제는 여성에 있어서도 유방암을 앞질러 폐암이 제1의 암으로 등장하고 있다. 흡연은 폐암 뿐 아니라 구강암, 식도암, 후두암, 췌장암 등 전신적으로 암발생률을 증가시킨다. 흡연만 하지 않으면 폐암 등을 비롯한 여타의 암들이 예방된다는 생각을 할 때 금연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근 미국에서도 금연운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일반인의 흡연률이 35%로 감소되었고 특히 의사들은 담배를 피지 않게 되어 금연에 실패

가 B형 간염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런 사실로서 B형 간염퇴치를 위해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재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이 밖에 환경공해문제가 심각하나 이것은 개인적인 노력밖의 문제이므로 국가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당국은 물론 우리들도 생활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총체적으로 볼 때 암은 자기만 조심하면 75%정도에서 예방이 가능하다. 식생활개선, 금연, 간염퇴치만으로도 암에 걸릴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점을 늘 마음에 새겨두도록 하자.

무릇 모든 병에서 그렇듯이 「예방」이 가장 좋은 퇴치방법이긴 하나 우리주변에는 암발생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방에 대한 노력에 비교될 만큼 암치료방법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추세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암치료에서 완치까지의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기 진단이다.

암은 일찍 발견해서 아직 국소적인 범위에 있을때 수술을 행하면 완치가 된다. 조기진단을 위해서는 일반국민들에게 암에 대한 계몽을 많이하여 암을 의심케하는 증상이 있으면 일찌감치 병원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소화장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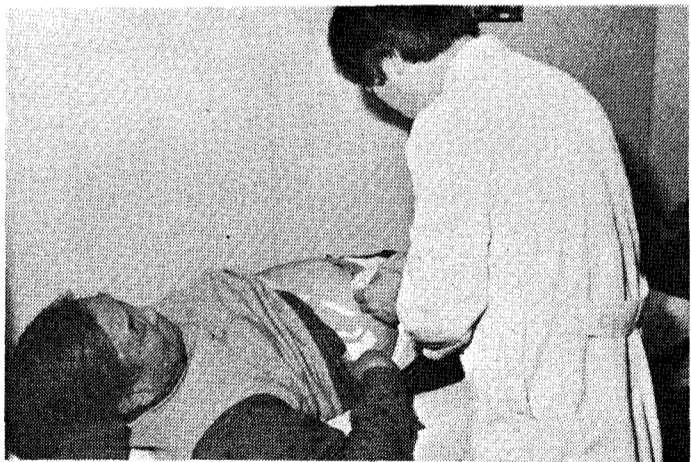
김 병 수
〈연세 의대〉
〈암센터소장〉

있을때 한번쯤 X선 촬영을 해보아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바른 태도이다. 몸의 어느 부위든지 명물이 만져지거나 이상 출혈이 있으면 암을 의심해봐야 한다. 또 목이 쉬거나 계속되는 기침은 폐암의 증상일 수 있으며 피부나 구강 등의 점막이 헐어서 아물지 않을 때에도 방치해 두지 말고 진단을 받아보라고 권하고 싶다.

우리 몸에 발생하는 암은 250가지나 되며 같은 종류의 암이라도 각 경우에 따라 치료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암이 의심되거나 진단되면 전문의료진이 있는 병원에서 처음부터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암환자의 경우 대부분 첫 수술이 제일 중요하며 가능한 근치수술이 완치에 기초가 된다.

미국의 경우 40%의 환자에서 근치수술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와있다. 25%의 경우는 근치수술후에도 재발가능성이 높은 암이거나 병기(病期)이므로 수술 후에도 항암제 등 전문의료진에게서 항암제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일례로 유방암2기는 근치수술 후에도 항암제를 투여함으로써 완치율을 배가시킬 수 있다. 나머지 35%의 환자는 처음 진단시에 이미 암이 전신에 퍼져 있어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가 불가능하지만 20%의 경우는 최근의 발전하는 항암제 투약으로 완치시킬 수 있거나 장기생존이 가능하다.

인류의 적인 암, 그것의 퇴치는 온세계 의료인들이 풀어야 할 숙제로 이를 위해 이미 집중적인 노력이 기울어지고 있어 미래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암이 불고오는 불행과 고통의 질곡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암 예방을 위한 계몽과 식생활개선, 금연 등 전사회적인 공동노력이 있어야 하며 의료진을 위한 충분한 뒷받침과 아울러 암이 없는 내일을 위한 전 국민의 호응과 협조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겠다.



◆암예방을 위한 계몽과 식생활개선, 금연 등 全社會的인 공동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사건은 記事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회원入會안내

최근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의 변화와 더불어 급격하게 증대되고 있는 成人病(암·당뇨병·고혈압·심장병·뇌혈관 질환·간경변증·만성간장염·비만증등)은 사회각계에서 증진으로 활약중인 40~50대에서 주로 발병하여 개인적및 국가적인 차원의 인력자원 손실을 초래함으로써 바야흐로 사회적인 중대문제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본회는 成人病의 예방및 치료기술을 개발 보급 하고, 지도계몽을 통하여 국민보건향상과 복지사회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바,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事業

1. 성인병의 예방및 치료에관한 기술개발및 보급
2. 성인병의 예방및 치료에 관한 지도계몽
3. 성인병에 관한 연구 조사및 기술의 평가
4. 성인병에 관한 의약품의 연구개발
5. 성인병진료를 위한 전문의료기관의 설치운영
6. 성인병 예방및 치료를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연구및 성인병의 예방및 치료를 위한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
7. 기타 목적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會員의 자격

1. 正會員 協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이에 참여하는 성인병관계학자및 전문가 또는 협회발전에 功이 있는者
2. 特別會員 協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협회사업에 功이 있는 者
3. 참여하는 사업체(自營者포함)의 長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일반회원 協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협회사업에 功이 있는 성인병을 가진자 또는 관심있는 일반국민.

入會節次

協會 사무처에서 배부하는 소정양식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理事會의 동의를 받아야 함.

會費

- 正會員 入會費 1만원, 年間會費 2만원
 - 特別會員 入會費 10만원, 年間會費 12만원
 - 일반회원 入會費 1만원, 年間會費 1만 2천원
- (입회시는 입회비 및 연간회비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사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주소: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8-2(서대문우체국 6층 603호) • 전화 392-4744

사단법인 한국 성인병 예방 협회

會長 李文鎔